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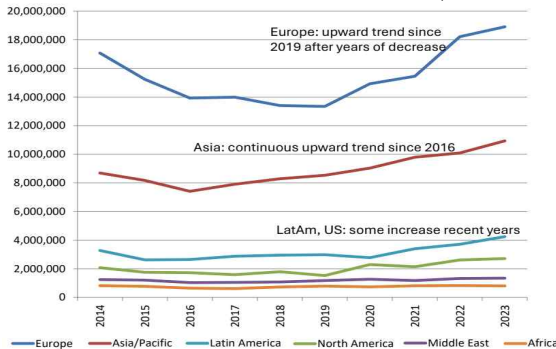
요약

2023년 해상보험료 총액과 2024년 8월까지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증가하는 개인소비지출과 유럽경제의 회복 덕분에 보임. 하지만 미 대선에서 대중국 강경 정책 기조를 보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2018년처럼 미-중 무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. 세계무역 둔화로 해상보험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수익성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강화에 힘쓰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서 비롯된 새로운 기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

- 2023년 해상보험료 총액과 2024년 8월까지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는 등 해상보험 관련 통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유럽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
  - 국제해상보험연합(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; IUMI)의 보고서<sup>1)</sup>에 따르면, 2023년 전 세계 해상보험 보험료 총액은 389억 달러로, 전년 대비 5.9% 증가함(화물보험은 6.2%, 선체보험은 7.6% 증가)
    - 2024년 1~8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은 YoY 6.6% 증가했고 4~8월 현물 운송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됨
  - 미국의 9월 개인소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.1% 성장하는 등 상승추세이며, EU의 1~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.6 → 0.8 → 0.9%로 점차 회복하고 있는 점이 해상 물류 수요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(그림 2) 참조
    - Swiss Re는 이 같은 추세가 수입업체들이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래에 무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미국 11월 대선 이전에 선적을 미리 앞당겼을 가능성을 제기함<sup>2)</sup>

〈그림 1〉 지역별 해상보험료 총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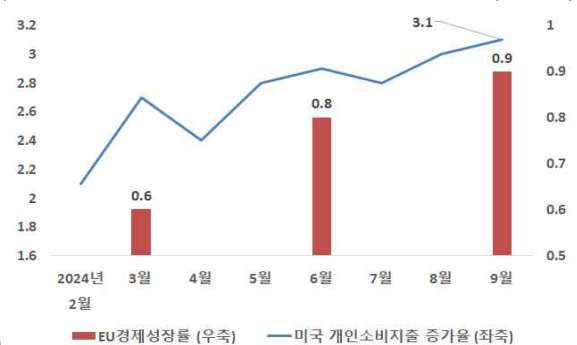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달러)



자료: 국제해상보험연합(IUMI), "IUMI Stats 2024"

〈그림 2〉 미국 개인소비지출 변화율과 EU 경제성장률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: %)



자료: 미국 경제분석국(BEA); 유럽통계청(Eurostat)

1) IUMI(2024. 10), "IUMI Stats 2024"

2) Swiss Re Institute(2024. 9), "Marine insurance: geopolitical tension creates a choppy outlook for seaborne trade"

- 무역 긴장은 해상운송과 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, 미 대선에서 대중국 강경 정책 기조를 보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미-중 무역뿐 아니라 세계무역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
  - IUMI의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 미-중 무역전쟁 당시 2019년 미-중 양국 간 상품 흐름의 가치는 전년 대비 16% 하락했으며, 북미 지역의 해상보험료가 15% 하락한 바 있음
  - 미국 대선에서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중국 정책에 있어 강경 기조를 보였는데, 상대적으로 더 강경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2018년처럼 미-중 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
    - 공화당은 정강정책에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, 중국산 필수 재화 수입 단계적 중단 등을 포함시킴<sup>3)</sup>
  - 트럼프 후보는 대중국(60%)은 물론 타국(10%)의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노골화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무역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
    - JP모건 체이스의 추정<sup>4)</sup>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세계 GDP 1, 2위를 차지하고 있고, 그 비중도 28%와 20%로 세계 GDP의 거의 절반에 육박함에 따라 해상운송량 위축이 불가피함

〈표 1〉 미국 공화당의 통상·대중국 정책

통상 정책	대중국 정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산 상품에 대해 10% 보편적 관세 부과</li> <li>• 트럼프 상호 무역법 통과</li> <li>• 미국산 제품 구매, 미국 내 고용 정책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자리를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연방정부와 거래 금지</li> </ul> </li> <li>• 경제와 안보를 위해 중요한 공급망을 미국으로 복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</li> <li>• 중국산 필수 재화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</li> <li>• 중국의 미국 부동산과 산업 인수 저지</li> <li>•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금지, 미국 자동차산업 부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조치 등 취소</li> </ul> </li> <li>•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60% 관세 부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강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트럼프 후보 공약임</li> </ul> </li> </ul>

주: Trump Reciprocal Trade Act(상호주의 관세(Reciprocal Tariffs)를 제기했으며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임)  
 자료: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(2024. 8), "2024 Republican Party Platform" 원문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; IUMI(2024. 4. 10), "IUMI Stats 2024"

- 세계무역 둔화로 해상보험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수익성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강화에 힘쓰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서 비롯된 새로운 기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<sup>5)</sup>
  - 해상보험업계는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설정하고, 위험노출을 관리하고, 선상 안전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예방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해상보험시장 위축에 대응할 수 있음
  -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향후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운송과 보험업계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
    -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비중은 2017년 2.3%, 2023년 6%에 불과하지만, 선박의 수명은 20~30년이고 탄소제로 목표가 2050년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친환경 선박의 주문과 제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<sup>6)</sup>
    -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친환경 정책 폐기를 공언하고 있어 이러한 기회요인에 의한 영향이 당초 기대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

3) 민주당은 첨단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하되,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디커플링(De-Coupling) 대신 위험완화(De-Risking)를 추구함  
 4) Bloomberg(2023. 12), "China's Economic Heft Sinks for First Time in Three Decades"  
 5) Swiss Re Institute(2024. 9), "Marine insurance: geopolitical tension creates a choppy outlook for seaborne trade"  
 6) 2023년에 신규 주문된 선박의 45%가 LNG를 포함한 대체연료를 사용하도록 제작됨